

4 >> 국제캠 통학로 안전문제



6~7 >> 사라지는 노천극장과 소라관



2015학년도 1학기 성적 열람 및 공시(정정)기간

성적열람기간(강의평가 실시자) 1차 : 6. 15(월)~6. 23(화)
2차 : 6. 29(일)~6. 30(화)
성적공시(정정)기간(전체학생) : 7. 1(수)~7. 3(금)
※강의평가 미 실시자는 성적공시(정정)기간에만 성적열람 가능

한의·간호·이과대학 건물 20일 착공

건설사업단, 학생피해 최소화 위해 “기말고사 이후로 시기 조정”

서울캠 SPACE21 사업 시작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hu.ac.kr

SPACE21 사업 중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이 지난 3월 10일 착공식을 가진 가운데 서울캠퍼스(서울캠)도 대운동장에 들어설, 간호과 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 건물과 공공기숙사가 20일 대운동장 스탠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 중 노천극장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위해 폐쇄되며 소라관은 철거된다.

〈관련기사 6~7면〉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SPACE21 사업단은 대형 공사차량 진입과 그에 따른 보행자 동선 변경을 위해 이미 지난 3월에 ‘보차도 분리공사’와 ‘건설회차량 진입로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본 공사는 안전문제와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방학 전까지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소화하기 위해 기말고사 기간 이후로 설정된 바 있다.

공사일정에 따르면 6월 1주차에는 대운동장에 공사 펜스가 설치되고, 2주차와 3주차에는 주변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노천극장의 소라관 철거공사가 시작되고, 대운

동장 본부석은 오는 27일부터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학기간인 7월과 8월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약 2년 간 공사가 진행돼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ACE21 사업단 측은 “공사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설정했다”며 “특히 소음 피해와 분진이 예상되는 토목공사는 방학기간 중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5면으로 이어짐

우리학교, 창립대학 자격으로 초청 받아 조인원 총장 ‘1965, 그 회상의 미래’ 주제로 기조연설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우리학교는 1964년 IAUP 창립을 주도한 5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이번 기념식에는 조인원 총장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기념식은 ‘2065년 고등교육’을 주제로 개최됐다. 세계 전·현직 대학 총장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인원 총장은 지난 23일에

‘1965, 그 회상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조 총장은 “인간과 문명의 궁극적 실체,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일과 그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일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과 대학총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다”라며 대학이 인류사회에 가져야 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달 공개된 ‘미래리포트’를 언급하며 문명의 진보 안에서 이 시대 대학생들이 처하게 된 경쟁적 개인시대에 대한 고민을 공

유하고 대학의 교육적 사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4일 저녁에는 제1차 IAUP 회의가 열렸던 장소인 로드장학재단 본부에서 우리학교가 주최한 폐막 만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 총장은 130여 명의 참석자들에 대한 환영사로 IAUP의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50년의 발전을 기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교류처 박용승 처장은 “이번 회의는 IAUP의 전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회

의였다. 회의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며 “50년 전,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주창한 ‘세계시민정신’은 현대사회에도 유효하다. 이런 가치를 우리학교가 계속 추구한다면 끊임없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후 조 총장은 IAUP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 IAUP 창립을 이끌었던 우리대학 설립자 조영식 박사를 비롯한 5개 대학의 창립 총장을 기리는 기념식수 행사도 열렸다.

〈관련 인터뷰 3면〉

Newsmaker

〈숨다섯〉 앨범 발매한 MJP
박민준(작곡 2011) 군



일상을 노래하는 스물다섯의 이야기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하루를 마감하는 나의 숨소리 / 하늘 바라보다 하리 (쪽)소리 / 하루 종일 땀다가 붙였다가 버스카드 소리 / 지겨워 잠들 땀 내 천장 위에 그려가던 / 어린 시절 / 지금보다 순수했던 나의 꿈들은 / 사라져 버린 스물다섯 청춘.’

지난달 25일 발매된 ‘숨다섯’이란 앨범의 타이틀곡 도입 부분의 가사다. 경쾌한 피아노 소리로 시작하는 이 음악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박민준(작곡 2011) 군의 노래다. 우리신문은 지난 3일 그를 만나 음악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작곡가로 인지도 쌓고

싱어송라이터로 노래하고,
‘숨다섯’의 희망 노래

독특한 유래가 있는데, 박 군이 수업시간에 옆 사람이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소리가 특이하게 들려서 무슨 음료인지 물어보니 ‘모카라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기서 시작된 의식의 흐름이 곧 자연스레 작사로 이어졌는데, 워낙 몰두하다 보니 해당 수업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곡의 가사가 전부 완성됐다고 한다.

“우유팩에 빨대를 꽂아 먹다 보면 후르륵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옆 자리에서 문득 그 소리가 나기에 우유 소리인 줄 알았는데, 모카라떼였어요. 전 카페라떼는 많이 들어봤는데 모카라떼는 그 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에는 그 어감에 집중하다가,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곡이 시작됐는데, 수업이 끝날 때에는 이미 〈모카와 라떼 사이〉라는 곡의 가사가 다 나와 있었어요. 뭐 수업을 제대로 듣진 못했지만요.”

박민준 군의 첫 앨범제목이자 타이틀곡의 이름인 ‘숨다섯’은 올해의 그의 나이 25살을 의미한다. 그에게 이 스물다섯은 미래에 대한 고민의 시기이자, 남다른 의미의 때이기도 하다.

“25세면 ‘반 50세’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25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놀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기본은 이뤄놓고 싶어요. 졸업 후에 쉬는 기간 없이 바로 무언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보니 고민이 많아지죠. 그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이 ‘숨다섯’예요.”

세 곡으로 이뤄진 미니앨범 ‘숨다섯’ 앨범에 수록돼있는 다른 두 곡 역시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이를테면 〈방울소리〉는 13년 동안 키워던 반려견이 죽었을 때 잠을 이룰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작사한 곡이다. 〈모카와 라떼 사이〉는 조금

다른 사람의 음악 재생 목록에 자신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는 박 군. 3월부터는 앨범을 준비하던 틈틈이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박 군의 꿈은 ‘대중음악 작곡가’다.

“일단 전공이 작곡이니까, 작곡가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숨다섯〉의 후렴구처럼 ‘완벽한 확신 따윈 없’지만 ‘무서워 숨지는 말자’는 태도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 음악대학 모든 학과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전부 피쳐링으로 참여하는 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이 이끄는 그의 삶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나이 ‘숨다섯’이 음악 인생의 뚜렷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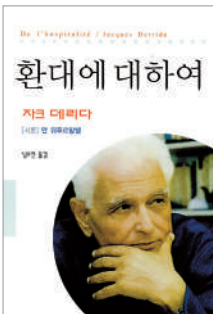
이방인의 환대, 《환대에 대하여》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65

민승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뒤푸르망텔이 초대(invitation)하고 데리다가 응답한다. 그러나 데리다는 뒤푸르망텔을 사로잡는 ‘광기’로, 그녀를 놀라게 하는 ‘유령’으로 이미 그녀를 방문(visitation)하고 있다. 초대는 이미 항상 타자의 방문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왼쪽 페이지엔 뒤푸르망텔이, 오른쪽 페이지엔 데리다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데

리다를 이론화(하지 않는 방식으로)하려는 뒤푸르망텔은 데리다라는 ‘밤’을 통과해야 하고 데리다 역시 뒤푸르망텔의 ‘낮’의 사유를 경



환대는 이방인의 환대이고 플라톤에게 이방인이란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자다

유해야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자신과 달라야만, 스스로를 연기하거나 중지해야만 자신이 될 수 있는 환대(hospitality). 낮과 밤, 초대와 방문은 이미 서로를 사로잡는 광기로 상대방 속에서 출몰한다. 서로의 문턱을 넘나드는 혼돈의 움직임 속에서, 이미 있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약속으로 남아 있는 타자에게 공간을 선물하는 행위가 바로 환대이다.

환대는 사유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그것을 동요시키는 ‘열림’으로 출몰하고 있었다. 환대는 이방인의 환대이고 플라톤에게 이방인이

란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자이다. 아버지 로고스를 뒤흔드는 ‘미친-이방인-살해자.’ 그러나 이방인이 아버지 살해자라면 그는 이미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가? 데리다는 묻는다. ‘어떤 사람이 네 옆에 다가가 아무 잘못 없는 너를 죽이려 한다면 너는 이 자자가 아버지인지 물어보겠느냐, 아니면 곧장 반격하겠느냐?’고. 오이디푸스의 항거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친밀한 자임을 증언한다. 때로 이방인은 소크라테스 자신이다.

▶11면으로 이어짐

알림

이번 호가 2015학년도 1학기 중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기획

설립자 故 조영식 박사

1954년 학장취임식 릴-테이프 발굴

>>8면